불자 세상보기

"엄마, 이명박은 나쁜놈이래"

신승철
큰사랑노인전문병원장

저녁식사 중 중학교 1년생인 아들이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학교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명박은 나쁜놈이래." 엄마는 섬뜩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중학교 1년생들을 놓고, 때 이르게 사회적 적개심을 부추기는 게 도리에 맞는가. 엄마는 내심 불안했다. 이러다 우리 애 잘못되는 건 아닌가. 엄마는 전화로 학교에 항의까지 해 봤으나, 맥이 빠질 뿐이었다.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언론을 통해 어제나 오늘도 간간히 이런 유의 소식을 접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헌법 제31조에 명시돼 있지만, 사문화가 된 것만 같다. 요즘 일부 일선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박정희 前 대통령은 진짜 나쁜 놈, 김대중·노무현 前 대통령은 대단히 훌륭한 일만 했다고 강변하기도 한다. 심지어 선생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은 모두 쓰레기라며 핏대를 올리곤 한단다.

이런 주장을 하는 교사들의 생각 저편에는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신념, 부패한 기득권 세력을 무너뜨려 평등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자주 정신 같은 게 있을 거라 짐작된다. 그러나 교육자로서 그런 표출 행동은 분명 크게 잘못된 것이다. 학교교육이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가슴이 찢어질듯 한 비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근·현대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누구든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극좌파는 대체로 지적 엘리트 집단으로, 반국가적 선동에 있어 흔히 유토피아적 '주의'를 내세웠다. 예를 들면 볼셰비키혁명이나 마오주의자 등이다. 국가 정체성에는 민족주의나 공동체의식 같은 게 깃들어 있다. 하나 극좌파들은 민족주의를 '부정적' 의미로 곧잘 연결시킨다. 폐쇄적 의미의 민족주의를 상기시킨다든가, 민족의 '이름'으로 다른 모든 가치를 굴복시키는 일 말 이다. 극좌파들이 내세우는 이념이란 대체로 외견상 그럴듯 해 보인다. 그러나 그 이면엔 사실 지적 허영심이나 과도한 자부심이 도사린다. 누구나 공감이 되는 평등주의를 지향하나, 그 내면엔 스스로가 평등치 못한 경직된 권위주의가 발견된다. 국가나 사회를 '폭력적' 구조로서만 인식하면, 그 투쟁의 방도는 결국 힘을 위한 힘을 추구하기 마련이다. 여기에 그 신념의 합리화나 정당화가 뒤따른다. 알다시피 대중은 그 순진함으로, 편협하지만 그럴듯한 합목적성 수사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

그러나 이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만일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면, 어느 집단이나 인간은 '사탄'으로 악마화 시킨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의 심리기저에 '수용'이란 말은 오히려 자기분열이나 혼돈을 야기시킬 가능성마저 있다.

독재 정권 시절, 억압과 원한을 겪었던 기억은 우리의 집단 역사의식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을 것이다. 인간 에고(자아)의 특성상, 피해자의 심리는 곧 바로 가해자에 대한 보복심리로 전환된다. 악을 미워하는 심리는 일정 정당성을 확보한다. 그러나 그 악을 비난함으로서 스스로 우월감을 느끼려는 심리와 더불어, 그 우월감 속엔 자신은 전혀 악하지 않다는 생각도 담겨 있을 것이다.

우리 격언에 "며느리 자라 시어미 되니, 시어미 티를 더 잘 한다"는 말이 있다. 시어미는 독재 권력으로 비유가 될 수 있겠다. 주의해야 될 사항이다. 악을 미워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더 악해질 수 있다. 자신의 악으로부터 도피한다는 자각을 못한 채 말이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개인적인 정치적 원한의 심정을 투사하는 것은 분명 바른 교육에서 벗어난 일이다. 어린 학생들의 사고를 독점, 노예화시키려는 의도의 반영이기도 하다. 이런 행태는 우스꽝스럽고, 미숙한 엘리트 의식을 거칠게 드러내는 것이다. 교사에 따라 교육 방식에 그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 근본은 학생들로 하여금 진실에 대한 탐구를 독려하는데 있다. 이게 진보적 의미의 교육관이리라. 역사나 사회의 실상을 일방적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 의식의 자각을 통해 깊은 이해를 하도록 해주면 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자발성을 북돋워 주고, 뭐든 수용 할 줄 아는 능력을 계발시켜 주는 것이야 말로 참 교육의 궁극적 목표 아니겠는가. 일방적 비난이나 판단의 강요란 바로 '뭐든 내가 옳다면' 독재나 폭력적 언동이 정당하다고 가르치는 것과 진배없다.

사부대중 칼럼

시간을 아쉬워 하는 한여름 매미처럼

정율 스님
성악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스님 집엘 갔더니 근처에 논이 있어 그런지 개구리 소리가 너무 정겹게 들려왔다. 나는 스님께 "스님 참 좋은데 사는 것 같다" 했더니 그 스님은 나더러 "세상모르는 소리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개구리 목이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길래 나는 "그럼 너무 잔인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번 여름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울어대는 매미 때문에 아침 단잠을 깬다고 불평을 한다고 들었다.

때론 화통을 삶아먹은 기차소리 같긴 하지만 몇 년을 기다려 이 세상에 나와 짧은 시간동안 서로의 인연들에게 세레나데를 보내려 안간힘을 쓰는 매미에게 목이 쉬어서 소리가 안 났으면 좋겠다는 표현은 너무 인정머리 없는 소리가 아닌가 싶다.

만약 사람이 입은 있으되 못한다면 그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일이겠는가?

저들의 노래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생각하기보다 아름다운 노래 소리로 생각 자체를 바꾸어 들으면 좋겠다.

더구나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매미들이 많은 노래를 부르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가만히 들어보니 비가 오면 뚝 그치고, 비가 잠시라도 멈추면 죽어라고 노래하는 매미의 시간이 얼마나 아까울까 싶어 안타까워했던 생각이 난다.

'나의 노래도 언젠가는 매미의 처절한 노래처럼 시간의 흐름을 아쉬워 하겠지…' 하고 생각하면 왠지 우울해지려 한다.

이제는 매미가 빈 껍질을 남겨놓고 떠나가야 할 시간…. 나도 고독의 허울을 쓰고 이 가을 깊은 산속으로 걸어가고 싶다.

내 살갗을 간지럽히듯 소리 없이 다가와 속삭이는 바람의 노래 속에 한껏 빠져 들어가고 싶다.

모든 번뇌 망상을 단풍에게 다 안겨주고 깨끗하게 비누질하듯 욕심과 집착을 싹 씻어내어 버리고 나의 혼을 사를 수 있는 노래속 세상 그 삼매에 젖어 들고 싶다.

가을이라는 계절에 어우러져 삼매에 빠져들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산사음악회다.

깊은 산속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산사음악회로 하여금 TV에서만 봐오던 가수들을 보면서 낭만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몇 년 전 영동 반야사에서 산사음악회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다. 행사의 끝 순서로 필자를 넣고 기다린다기에 가겠다고 약속하고 죽기 살기로 달려 간 적이 있었다.

그날따라 그리 멀지 않은 길에 차들은 어찌 그리 많은지 정말 차를 버리고 그냥 두발로 달려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조급한 마음에 가면서 몇 번이나 전화를 해도 절에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심장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다.

겨우 절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음악회를 마치는 멘트가 나가고 사람들이 흘어지기 시작했다.

얼마나 맥이 빠지고 황망한지….

할 말이 없었다. 주지스님께 찾아가 죄송하다는 인사를 드렸는데 별 대수롭지 않게 대했다.

그렇게 애를 태우고 달려온 길을 되돌아 나가면서 내게 몰려와 인사를 주는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인사하면서 '욕심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무리한 행사 약속은 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사실 주지스님께 죄송한 마음보다는 나의 노래를 찾아 먼 길을 오신 분들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컸었다.

부처님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과 하나로 엮기 위해 간절한 노래를 부르려 애쓰는 내 자신이 욕심을 부리지 말자고 다짐했다.

살아가면서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 두 가지를 조금만 조절하면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 가을 누가 지시하거나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둘씩 옷을 벗는 나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들처럼 빈 마음으로 살고 싶다.

단풍이 하나 둘씩 물들어 갈 때 그 잎들에게 애원하듯 두 손 모아 기도해 본다.

그 붉은 잎에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다 안아서 떠나시면 안 되냐고, 그 단풍에 번뇌 망상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의 액운을 모조리 쓸어가기는 어려운 것이냐고….

수행하는 나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들처럼 묵묵히 계절의 흐름에 순종하며 빈 마음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社說

잘했지만 뭔가 아쉬웠던 중앙종회

조계종 중앙종회 제187회 임시회가 9월 20일 폐회했다.

이번 종회에서는 조계종 사찰의 등록·관리의 기준이 되는 사찰법이 만장일치로 제정됐다. 또, 승려법 개정을 통해 승랍기산 피해자 2000여 명이 구제 받을 길이 열리고, 포교원장 선출 등 인사 관련 건도 대부분 순조롭게 마무리 되며 제법 굵직굵직한 성과들을 이뤄냈다.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통과된 법들은 대부분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것들로 특위 내부에서 충실한 논의를 거친 까닭에 본회의 통과가 수월했다는 평가가 많다. 의회 정치에서 소위원회의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증명한 셈이다.

그러나 중앙종회의원의 불징계 특권을 축소하는 중앙종회법 개정이 부결된 것은 아쉽다.

법리에 밝은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이 종회의원의 불징계권이 독립된 사법기관인 호계원의 판결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모를 리 없다.

불징계권은 과거 부당하게 억압하던 집행부에 굴하지 말고 종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라는 취지였다. 그런데 당초 취지와는 달리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특권화 된지 오래였다.

출가자는 세속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다. 그런 스님들이 왜 불징계권만은 방하착(放下着) 하지 못하고 있는지 불자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또,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는데 왜 불징계권 조항만은 변화하지 않는지도 궁금해 한다. 차기 종회에서 다시 답해주길 바란다.

교구본사스님들의 실천을 기다린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또 다시 북한을 방문했다. 총무원장 취임 후 세 번째 방문이다. 9월 21~24일 진행된 이번 일정에는 조계종 스님들 대신 7대종단 지도자들이 함께했다.

당초 김정일 위원장과 만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그래도 당 서열 2위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났다. 위상 운운하지 않고, 정치적 포석을 헤아리지 않더라도 자승 스님 등 남측 종교인들이 김영남 위원장을 만났다는 사실은 적어도 북측이 종교인들을 홀대하지 않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런 가운데, JTS가 27일 북한으로 밀가루 300톤, 두유 36만개, 이유식 10톤, 탈지분유 2톤, 전지분유 30톤, 영양강화식품 33톤 등 컨테이너 50대 분량의 식량을 지원했다. 이것들은 평양과 자강도를 제외한 북한 전역으로 전해져 9개 시·도 53개 시설 고아원, 양로원, 특수학교의 1만2000여 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불자들은 기억하고 있다. 5일 남북합동법회에 참석했던 조계종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의 대북지원 사업을 구체화하겠다는 다짐을.

불자들은 보고 있다. 22일 금산사에서 열린 교구본사주지협의회에서 분담금을 더 내달라는 총무원 측 요청을 (차라리) 종단수익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겠다며 완강하게 물리쳤던 모습을.

불자들은 바란다. 큰절 주지스님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를, 기아에 허덕이는 중생을 위해 흐지부지 지체 말고 빠른 결단을 내려줄 것을.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 발이차신분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최고의 명품! 선물로도 최고
2000만 佛子님의 필수품 디지털불경 뉴룸비니
2011년형 뉴룸비니 탄생기념 특별 할인 판매 대 행사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새롭게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뉴룸비니'
국내 처음으로 휴대용 디지털 불경 룸비니를 제작하여 시판에 들어가 선풍적 인기리에 판매되어 으며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기능이 더욱 향상된 2011년 최신모델을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뉴룸비니는 담배 곽 크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가 편하며 불자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뉴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어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 불자님의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룸비니 Lumbini Digital Buddhist Sutra Player
■ 규 격 8.5×5.2×2.0cm
■ 가 격 34,000 (건전지 포함)
룸비니는 관음도가 있으므로 늘 휴대하시면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心琴을 울린 효동선각스님의 독경이 가까이 있습니다
효동선각 스님의 독경을 듣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뇌가 소멸되며 일념무아 됩니다. 독경은 타고난 바리톤 음성으로 각종 불교 행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효동선각 스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독경을 진행 하셨습니다. 스님은 무형문화제 50호 故송암스님의 수제자로 양산 통도사로 출가하여 백양사,법주사,용주사에서 수행하셨고 서울 효동 범음대학 4년 수료와 중앙승가 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을 이수 하셨습니다.
2011년형 뉴룸비니 탄생기념행사로 200set 한정 특별할인판매
팩키지 1 뉴룸비니, 아답터(가정에서 전기사용) 특별가 37.000원
팩키지 2 뉴룸비니, 아답터, CD 2개 특별가 45.000원
팩키지 3 뉴룸비니, 아답터,테이프 3개, CD2개 특별가 54.000원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1,000set 이상 주문시 스님의 독경 및 법문을 입력시켜 드립니다. (독경,법문 녹음CD가 필요 합니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44,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35,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6㎝]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氣giban
나만의 참선세계 氣giban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수련에 氣giban
성불할때까지 평생을 사용할 수 있는 동반자 氣giban
氣giban 참선 선정과 만남, 진정한 나와의 만남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